불교카투니스트 '만만한 뉴스'

"불교를 재밌게… Cartoon이 주는 매력이죠"

불교박람회서 만나 의기투합
최초 불교만화 플랫폼 개설
각자 작업 바빠 현재 휴식기
불교 철학 바탕한 작업 '꾸준'

웹툰은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한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현재 시장 규모만 2300억 원에 달한다. 웹툰 작가는 이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스타가 됐다. 불교계도 아주 미약하지만, 만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초의 불교만화 플랫폼 '만만한 뉴스'를 이끌고 있는 '만만 브라더스(지찬 스님 · 배종훈 · 양경수 · 김동범)'가 있다.

'만만한 뉴스'는 만화로 쉽게 선(禪)을 전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4년 만들어졌다. 4명의 작가가 만날 수 있던 계기는 '2014불교박람회'에서 열린 불교만화초대기획전 '만화로 만화(卍話)하다'였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만났던 지찬 스님, 배종훈, 양경수 작가는 곧바로 의기투합했고, 지찬 스님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동범 카툰 작가를 섭외했다.

"처음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김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불교 만화를 잘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어서 '만만한 뉴스'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김동범 작가는 작품이 불교철학과 맞닿아 있어서 섭외했죠."(지찬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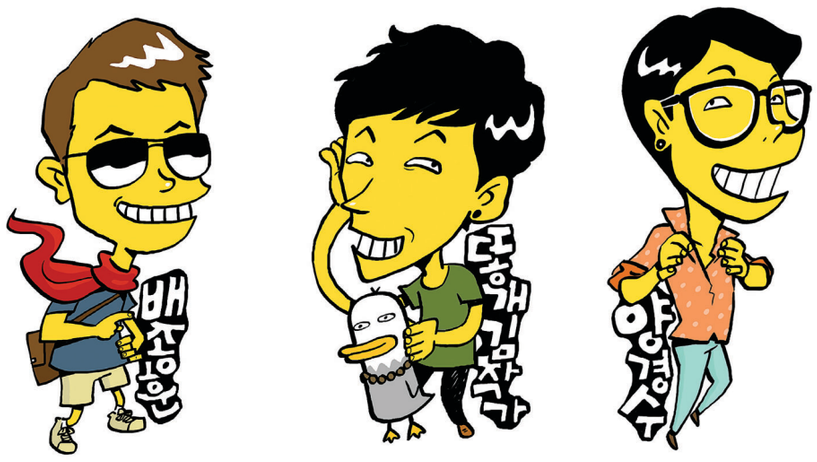
"만만한 뉴스에 들어온 것은 지찬 스님의 추천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저의 그림이 불교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힘이 됐어요.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불자여서 불교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구요."(김동범)

불교를 재미있게, 쉽게 전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작품 세계는 다르다. 지찬 스님은 오너캐(오너와 캐릭터의 합성어. 작가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를 의미함) '어라 스님'를 통해 일상의 깨달음을 전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불교만화를 그린 배종훈 작가는 4컷만화 형식으로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김동범 작가는 한 컷을 통한 의미 전달력이 돋보이는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양경수 작가는 부처님을 클럽DJ로 10대 제자를 히어로로 변신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4명의 작가 모두 자기의 일상적 경험과 소재를 통해 불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당시에 부처님과 10대 제자들은 요즘 말로 셀럽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에게 센세이션한 가르침을 전했고, 제자들은 각자마다 특출한 능력이 있었죠. 저는 이들을 '히어로'라고 생각했어요."(양경수)

"불교 경전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 현상에서 소재를 찾죠.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메모해요."(배종훈)



만만한 뉴스 창간이후 작가들은 사찰과 불교 관련 기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연재를 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작가로서 자기 발전도 이뤘다. 양경수 작가는 현재 '약치기 그림'으로 이 시대 소시민들에게 약을 치고 있다. B급 정서가 충만한 '약치기 그림'은 현실에 대한 비틀기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구가 중이다.

지찬 스님의 오너캐 '어라 스님'은 서주 스님의 동자승 '다워니'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책으로도 출판됐고, 이모티콘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만만한 뉴스를 설립한 작가들의 캐리커쳐. 그림은 김동범 작가가 그렸다.

2000년 초반부터 꾸준하게 불교 만화를 그리고 있는 배종훈 작가는 본지 연재를 비롯해 드로잉 수업, 개인 출판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동범 작가도 강의와 두 번째 여행포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 · 진행 중이다.

만만브라더스의 작가들은 불교 만화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창작 보장과 꾸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화라는 문화콘텐츠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포교에도 도움될 부분이 많아요. 불교계 차원의 불교만화 전문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김동범) "저는 불교 철학을 녹이는 작품을 많이 하려 합니다. '이것이 불교다'라는 고정된 생각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양경수)

신성민 기자

불교콘텐츠 발전 제언

"고정관념 버려야 불교 산다"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불교문화콘텐츠'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에 '불교'가 더해져서 생긴 용어이다. 불교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이 최종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수용하는 대상(소비자)과 생산 주체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어떻게 하면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되게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불교계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의 전반적인 과제로 확대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의 소재를 찾아서 전 세계를 탐색하는 미국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강국들의 사례를 보면,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특정 종교와 지역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불교문화를 상품화 시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공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콘텐츠산업백서〉의 기준에 의한 콘텐츠의 장르(2012년 기준)는 "영화, 음악, 출판,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패션문화, 게임, 캐릭터, 만화"로 규정된다. 이러한 콘텐츠의 장르에 부합되는 소재를 불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불교문화에 대한 전승이나 보존에 치우쳤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이 없이 기존의 불교문화를 답습하거나 복원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전통사찰에 함의된 '불상, 불화, 종, 북, 운판, 목어, 석탑, 전각, 기단' 등과 '염불, 제의, 춤, 음악' 등의 종교의례는 불교문화로의 원형성을 지니고 있다. 사찰에 내재된 문화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새로운 창작물이 없다면 과거에 치우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머물고 말 것이다. 원형의 복원과 보존 그리고 답습과 전승도 중요하지만 이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불교학'이나 '불교'의 학문성과 종교성도 중요하지만 변용의 자유를 통한 문화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원형에 너무 치우치면 이는 학문이 된다. 문화콘텐츠는 하나의 팩트를 두고 진실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좌우하기도 하고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기도 한다. 상상력은 어떤 원형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창작물들은 새롭고 신선함으로 종교적 신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둘째, 불교문화의 원형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멀티-유즈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양의 문화콘텐츠가 그리스 ·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열린 세계의 신화와 결부시켜 재구성한 것처럼, 불교문화의 경우도 불경을 비롯해서 불교적인 요소가 습합되어 있는 도교와 유교경전 그리고 민간신앙에 내재된 원형적인 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물인터넷이나 빅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생활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불교적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불교와 신 과학기술과의 통섭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부합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 지닌 특수성을 사회일반의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보편성 속에 녹아들게 하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좁은 범주에서 보면 '불교'라고 하는 것이 특수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불교적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시기가 불교의 기본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파워블로그 사용자, 웹투니스트, 신개념의 불교예술가, 청년벤처사업가, 만화가, 게임제작자 등 불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로 시작되는 나눔의 기쁨,
그 아름다운 길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세요"
희망의씨앗
장기기증희망등록문의:02-734-8050
ARS후원:060-703-1133(한통화5천원)
홈페이지주소:http://www.lisa.or.kr
*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지정 장기기증 교육 및 홍보 전문기관입니다.
· 장기기증희망등록사업 · 조혈모세포희망등록사업 · 환자치료비지원사업 · 자살예방 힐링사업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